**재무관리 과제**

학번: 12121774

학과: 통계학과

이름: 오재훈

자본시장이란 자금이 필요한 주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 금융자산이 발행되고 발행된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그러나 금융시장과의 차이점은 있다. 자본시장은 장기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자산이 발행되고 거래되는 시장, 금융시장은 단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시장으로 구분된다.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금융자산으로는 주식과 채권이 있으며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포괄하는 증권시장은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주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시장은 일정한 조건들을 가져야한다. 첫째, 거래비용이 극소화 될 수 있는 시장이어야 한다. 둘째, 시장에서 거래되고 유통되는 증권에 최상의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해야한다. 셋째, 증권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발생하면 즉시적으로 투자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자본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뉜다.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다. 보통주는 흔히 우리가 주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주주의 일반적인 모든 권리를 갖게 된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우선해서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우선주는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로 분류할 수 있다. 또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로도 분류할 수 있다. 우선주는 자기자본을 통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부채를 이용하는 경우와 달리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할 수 있다.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주식은 액면주와 무액면주로 분류할 수 있다. 액면주는 발행된 주식의 액면 금액이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기재되어 표시되어 있는 주식을 의미하고 무액면주는 액면가가 표시되지 않는 주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액면주의 발행이 허용되고 있지 않다. 주식은 의결권주와 무의결권주로도 분류할 수 있다. 보통주는 의결권주, 우선주는 보통 무의결권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무의결권주는 이익분배 시 우선주보다 낮고 보통주보다 높다. 배당을 받지 못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은 발행 주체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장기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유가증권으로 일정한 이자의 지불조건과 원금의 상환조건 등을 표시하는 채무와 관련된 약속증서이다.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게 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서 회사채, 국채와 공채, 특수채로 분류할 수 있다. 회사채는 발행주체가 주식회사가 되는 채권으로 기업의 신용위험에 따라서 이자율 또는 발행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채와 공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이다. 이 채권은 무위험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수채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다.

이자지급방법에 따라서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 영구채로 나눌 수 있다. 이표채는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을 말하며 우리나라 회사채는 대부분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로 발행되고 있다. 할인채는 지급해야 될 이자의 총액을 미리 액면가에서 차감하고 발행되는 채권으로 반기에는 액면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만기까지는 이자지급이 없다. 복리채는 채권의 만기까지 이자의 지급이 없고 매 기간 지급되어야 할 이자가 재투자되어 만기 시 액면가와 이자가 동시에 모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영구채는 액면가에 해당하는 원금의 지급이 없어 일정기간마다 이자액이 영구히 지급되는 채권으로서 특수한 형태의 채권이다.

원금상환방식에 따라서 수의상환채권과 일시상환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수의상환채권은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만기 이전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채권으로 채권 발행 시 이러한 권리행사에 대한 조건이 명시된다. 일반적으로 상환 시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이 필요하다. 향후 이자율이 떨어지면 낮은 이자율의 채권을 다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만기가 되면 일시에 상환이 되는 채권이 일시상환채권이다.

보증과 담보의 유무에 따라서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 담보사채와 무담보사채로 나눌 수 있다. 회사채는 보증의 유무에 따라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로 분류된다. 보증사채는 제 3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다. 이것의 반대가 무보증사채다. 담보의 존재 유무에 따라 담보사채와 무담보사채로 분류된다. 담보는 부동산담보와 유가증권이 가능하다. 부동산담보사채, 유가증권담보사채가 있다.

특수증권이란 증권의 소유주가 증권과 관련된 특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증권을 의미한다. 전환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있다. 전환증권의 종류에는 전환사채와 전환우선주 등이 있다. 전환사채는 채권의 성격을 갖는 증권이지만 투자자가 원할 경우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이다. 전환우선주도 보통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이다. 일반적으로 전환사채의 이자율은 전환권의 존재로 인해서 보통의 사채보다 낮다. 그러나 전환증권들이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기존주주들의 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의 소유주에게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특수한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소유주가 신주의 매입권리를 행사하여도 사채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